日, 닥종이로 염분 노출 마애불 보존처리

오랜 기간 흡수된 염분 처리위해
일본 전통종이 '화지' 활용 진행
'탈염처리법' 발견 해외서도 관심
"염류 대책은 보존 정비 첫걸음"

박영빈 객원기자


닥종이를 이용해 마애불을 훼손하는 염분을 제거한다. 사진출처=오이타 합동신문

일본 오이타(大分)시 소재 고대 마애불을 일본 전통 닥종이를 활용해 보존처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월 12일, 일본의 '오이타 합동신문'은 석불의 열화를 가속시키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독특한 보존처리에 대해 보도했다.

'오이타 모토마치 석불'은 오이타시의 시가지에 가까운 모토마치(元町) 지구의 우에노다이지(上野丘台地) 언덕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헤이안 시대 후기인 11세기 중반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본존은 높이 3.84m의 약사여래불로 좌우에는 부동명왕 삼존상과 비사문천상이 조성되어 있다. 현지에서는 '바위 약사불'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지역 신행활동의 중심지로 모셔져왔다. 뛰어난 작품성과 역사성으로 1924년 일본의 사적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천에 노출된 결과 현재 본존상의 양팔과 복부 등이 크게 탈락되었고, 최근 어깨와 무릎에 박락과 열화가 관측됐다. 오이타시 문화재과 측은 "마애불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에 포함된 염분이 열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염분이 바위를 타고 올라와 지표에서 결정화되면서 마애불을 내부에서부터 부식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1971년에 보존정비를 실시, 1986~1995년에는 배수관 등을 마련해 마애불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를 차단했다. 문화재과 측은 "지하수를 차단했음에도 오랫동안 흡수된 염분이 계속 불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최근 조사결과를 전했다.

최근 이 마애불에 대한 보존처리에 오이타시 문화재과는 독자적인 처리법을 개발하여 진행 중이다. 일본의 전통 닥종이인 화지를 불상에 직접 붙여 염분을 흡수시키는 것이다. 문화재과는 지난 2014년 손상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붙인 닥종이에 염분결정이 맺힌 것을 발견, 나라문화재연구소의 연구자들의 조사결과 실제 화지에 탈염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화지를 이용한 석조문화재의 탈염처리법의 발견에 해외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와 독일 등 염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심한 국가의 연구진들이 모토마치 마애불을 방문해 탈염처리법을 비롯한 보존처리법을 배워갔다. 한편 문화재과 측은 처리를 실시하는 간격을 검토 중이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본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빈번한 화지의 교체는 석불을 손상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연 1회, 2개월 정도 화지를 붙여 왔지만, 21~22년은 휴식,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재개했다. 향후 적절한 간격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나라문화재연구소와 교토대 공학연구과는 합동 조사와 실험을 실시, 마애불 옆에 마애불과 같은 응회암으로 만든 직육면체를 설치해 연 단위로 수분량과 온도 등의 데이터를 계측해 보다 효율적으로 탈염할 수 있는 처리법의 개발 실험에 나섰다. 오이타시 문화재과 고노시로 참사보는 "염류 대책은 향후의 보존 정비의 첫걸음"이라면서 "보다 좋은 방법을 찾고 싶다"며 향후 마애불의 보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자연과 하나 되는 명상 공간 조성

끼리롬 국립공원 내 조성 예정
38만평 규모…불교 연구 구역도


끼리롬 국립공원 삼매 성역 사업부지 전경. 사진출처=더 네이션 타일랜드

캄보디아 환경부가 국내외 불자들의 명상 수련과 전법 활성화를 위해 끼리롬 국립공원 내 삼매 성역 조성에 나섰다. 지난 1월 8일 '더 네이션 타일랜드'는 캄보디아 국립공원 내 삼매 성역 조성 소식을 전했다.

프놈펜에서 112㎞ 떨어진 캄퐁스페우 지역에 위치한 끼리롬 국립공원은 캄보디아 첫 국립공원으로 '행복한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캄보디아 2023~28 환경순환 전략사업 중 하나인 캄보디아 불교문화 홍보 및 천연자원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캄보디아의 천혜 자연 속 삼매 성역 부지는 126만㎡(약 38만여 평) 규모로 조성된다. 끼리롬 국립공원 삼매 성역은 명상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불교 연구 및 전법도량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캄보디아 앙 소팔레스 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사업부지 현장 시찰을 마쳤다"면서 "캄보디아의 천혜자원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으로 이끌 삼매 성역 조성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식 크메르 천막을 활용해 캄보디아의 전통과 자연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이라면서 "지역사회의 환경적 책임을 다해 수익의 일정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왕립과학원의 분탕 연구원은 끼리롬 국립공원 삼매 성역 조성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숲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기 인식을 촉진할 교육과 명상 전문가들의 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고도화 된 물질문명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매 성역이 현대인의 마음 정화와 치유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사회가 성장하여 명상과 불교의 실천을 촉진하는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2천년 전 불탑유적 새롭게 발견

서기 1~2세기경 건립 추정
동남아시아 문화교류 확인


팔루르 항구유적에서 발견된 불탑유적. 사진출처=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2000년 전 불탑유적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현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유적은 서기 1세기에서 2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팔루르(Palur) 불탑 유적지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오디샤주 간잠(Ganjam)지구에 소재한 팔루르(Palur) 항구유적군 발굴 작업 중에 새로 불탑유적이 발견됐다. 이번 발굴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진행돼왔다. 팔루르 항구유적은 고대 벵골 만에 위치하였던 국제 무역항으로 기원전 2세기 그리스의 지리서에도 언급되는 지역이다.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디샤 해양 및 동남아시아 연구소 측은 "이번 발굴 작업은 고대 팔루르항을 통한 동남아시아 문화교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에 이번 불탑유적의 발견은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발굴책임자이자 연구소 수석고고학자인 수닐 파트나익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탑은 높이 12m, 너비 3m의 직사각형 기단 위에 서 있다"면서 "현재 추정으로 탑신부는 최고 5.5m까지 솟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팔루르 유적의 언덕 정상에 건립됐던 사리탑의 연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기 1세기 또는 2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탑 외에도 여러 유물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보석구슬, 동전, 반지, 테라코타 조각상과 같은 생활유물들이 대거 출토됐으며, 다양한 색의 유약을 쓴 도기조각도 발견됐다. 파트나익 박사는 "불탑 근처에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곳이 국제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던 곳임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불탑의 정확한 연대측정을 시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모니카 L. 스미스 교수는 "팔루르는 기원전 4~3세기에 중요한 국제 항구 시설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국제적인 무역 접촉의 증거가 바로 언덕 위에 불탑이 건립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굴팀은 불탑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앞서 주변에 다른 불탑이나 사원 등의 유적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새로운 불탑이 발견됨에 따라 조영과 관련된 추가 유물 등의 출토 여부에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KFC, '마음 평온해지는 한 잔 커피'

중국 불교 성지 우타이산과 협업

미국 패스트푸드 글로벌 체인 KFC는 최근 새로운 커피를 출시하기 위해 중국 불교 성지인 우타이산과 제휴를 맺었다. 1월 10일 '다오 인사이트'는 미 패스트푸드 글로벌 체인 'KFC'와 중국 문수보살 성지 '우타이산(五臺山)'의 협업 커피 출시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부터 사찰여행이 중국 MZ세대 중심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이들을 두고 '불교계 청년(佛系青年)'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에 많은 사찰에서 MZ세대 포교 방식으로 '절카페' 운영에 나섰다. 항저우 용복사(永福寺)는 사찰로는 최초로 츠배커피(慈杯咖啡)라는 카페를 오픈했다.

신년 제품 출시 및 MZ세대 잡기에 나선 KFC는 불교 성지 우타이산과 협력해 향미가 우수한 아라비카 원두와 진한 우유를 넣은 '샌달우드 라떼'를 출시했다. 샌달우드 라떼는 젊은이들에게 '절향' '절냄새'로 대표되는 샌달우드(백단)향이 특징이다. 그리고 커피를 제공하는 컵에는 우타이산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과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 속 황제의 축언(顺遂无虞, 皆得所愿: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리고 소원 성취하길 바란다)을 담았다. 김민재 객원기자


KFC · 우타이산 샌달우드 커피 홍보 포스터. 사진출처=KFC

한국전통 자연치유 대체요법
뇌와 장을 살리는 힐링마사지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을 자연치유 하는 쾌뇌장 힐링요법
관리프로그램
쾌장경락마사지 (8만원)
기공치유
성인병관리
심리치유
오장육부 기능회복 (간, 심장, 비장, 폐, 위, 신장)
복부비만 등 복부관리
목, 어깨, 골반, 다리 등 각종 통증관리
스트레스 만성피로
각종 뇌질환(우울증 등) 관리
노화 예방, 장수 회춘 관리
영적치유 만트라명상

약손월드힐링센터 화성지부(향남) 010-7302-5620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